

보도시점 2024. 2. 7.(수) 11:00 배포 2024. 2. 7.(수) 10:00

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이동성 작업반(TF) 출범

- 관계부처 등 참여하는 작업반(TF) 통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

기획재정부는 2.7(수) 10:00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역동경제 3대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「사회이동성 작업반(TF)」 1차 회의를 주재하였다. 동 작업반은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‘사회이동성 개선’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보다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였다.

기획재정부는 지난 1.4(목)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‘역동경제 구현’ 이행안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 하에, 1.12(금) 경제부총리 주재 「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」, 1.18(목) 「사회이동성 전문가 간담회」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 개선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.

오늘 1차 회의에서는 한국의 「사회이동성 현황 분석(보사연)」과 「교육·직업 이동성 논의 현황(KDI)」 등 발제와 함께,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. 또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·연구기관의 역할과 작업반 일정 등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논의하였다.

< 「사회이동성 작업반(TF)」 1차 회의 개요 >

- 일시·장소 : '24.2.7(수) 10:00~11:00, 정부서울청사-세종청사(영상)
- 참석자 : (주재)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
(관계부처) 교육·고용·복지·산업·국토·중기·여가부, 통계청 국장급
(연구기관) KDI, 한국교육개발원, 한국고용정보원, 한국노동연구원,
한국보건사회연구원, 한국여성정책연구원,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,
국가평생교육진흥원,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등
- 논의내용 : 사회이동성 작업반(TF) 추진방향 및 향후 운영계획,
사회이동성 현황 분석(보사연) 및 교육·직업이동성 논의 현황(KDI)

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「사회이동성 작업반(TF)」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며, 교육·일자리 등 핵심 과제를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·발표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시동 (044-215-85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요균 (cooper@korea.kr)
			사무관	변재만 (byun221@korea.kr)